

오직 사랑이다

작성일 : 2011. 01. 03 (월) 3:20

작성자 : 김형순 (서울 주진리교회 안수집사)

[오늘 선생님께서는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실까를 생각하며 찬양을 선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렸습니다.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되짚어 기도드리고 아직 뽑히지 않은 근성들을 회개하며 내 영은 하나님께 주님께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심정 딱 맞춰 영원히 사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.

그리고 사랑고백을 계속 해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제가 영계로 가서 뵈건지 아님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건지를 물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.]

* 예수님 말씀 *

영계의 깊은 산 고지에 올라왔다.

네가 사랑함으로 나를 뚫었다.

그 산은 아무나 넘지 못한다.

깊고 깊은 산이라

나를 간절히 부르고

찾는 자가 오를 수 있다.

험난하고도 신비한 산이로다.

나의 사랑아!

나는 너의 사랑이 되고

너는 나의 사랑이 되자.

영원까지 사랑한다.

우리의 산은 너와 내가 만나는 산이다.

우리의 산은 그 누구도 틈 보지 못하는 산이로다.

너는 내 산에 와 안식을 얻으며

나는 너의 산에 올라 기쁨을 누리도다.

오직 사랑해야 오르는 산

오직 사랑해야 정복할 수 있는 산

우리의 산은 깊은 영계의 산이로다.

한끝 차이인 영계로 오르기 위해

이리도 몸부림의 기도를 해야 하건만

하늘의 성산에 오르기 위해

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?

우리의 산에 와 너와 나의 사랑을 나누자.

우리의 사랑은 산도 바다도 강도

그 어떤 만물의 아름다움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

깊은 심정의 울림으로 찾는 산이며

깊은 마음의 대화이며 깊은 사랑의 성산이로다.

사랑아!

많은 자들이 그 산을 오르다 포기한다.

자포자기한다.

두드리다 안 되면 매달리고

매달리다 안 되면 지혜를 받고

지혜가 안 오면 나를 애타게 사랑한다 외쳐보고

그것도 안 되면 목숨 걸고 사생결단하고

기도를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?

나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.

그러나 나는 누구에게라도 그 문을 열어준 주니라.

그 문을 기어올라 차지하고

자기 것으로 만드는 신부들이 되어라.

한 번 안 되면 두 번하고

두 번 하다 안 되면 세 번하며

끝까지 몸부림쳐 보아라.

그곳 정상에 올라 기뻐하며

그 사랑에 감격해 은혜의 눈물이 강이 되어

흐르게 되리라.

사랑한다. 너무 사랑한다.

내가 사랑하는 내 아끼는

나의 사랑의 섭리사 나의 백성, 나의 신부들아!

나는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지켜온 주니라.

만주의 주니라.

너희의 영원한 신랑이로다.

(“주님과 뜨겁게 사랑함으로 만나길 원합니다.

제에게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 하셨는데

그 사랑이 모든 문의 키인 것 같습니다.”)

그래,

사랑이다.

사랑이다.

오직 사랑이다.
사랑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.
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키다.
사랑으로만이 나를 차지할 수 있다.

나는 배고픈 신랑도
가진 것 없는 신랑도 아니기에
오직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
사랑의 온전한 자를 지금도 찾는다.
영원까지 사랑할 자를 찾는다.
그 사랑을 이룰 자를 찾는다.

(사랑의 고백을 계속 드렸습니다.)

이 시대가 사랑을 잃어 나를 버리게 되었으며
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라
형제를 살인하고 지금도 죽인다.

사랑이 풍성한 자가 누구냐?
그가 나의 뜻을 이루어줄 자다.
사랑으로 하는 나의 신부들이 난 지금도 필요하다.
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.
사랑을 채우고 채워야지.
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할 줄 아는
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지 나를 늘 만난다.

사랑의 빈 공간이 없는지
늘 너희를 살피고
오직 나를 맞고 살도록 하여라.
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.